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⑫ 차 놀이에 대하여

# 투다, 차를 통한 풍류 보이다

〈鬪茶〉

봄이 오면 차를 기다리는 애호가들은 기대감에 부푼다. 이는 새로 만든 햇차가 주는 맛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서다. 싱그러운 향기와 짜임새 있는 맛, 생기 발발한 차의 기세, 순수한 향, 맑고 시원한 향, 난향의 경쾌함 등은 좋은 차가 함의한 기미의 세계이다. 이는 차의 진수로, 차의 생명성이기 때문에 차를 만들거나 즐기는 이들이 명차의 조건으로 인식한다. 이런 명차를 만들기 위해 차의 산지 여러 곳에서는 곡우절(4월 20일경)이 오기를 기다린다. 곡우는 최적의 차를 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기로, 명차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좋은 차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곡우를 전후하여 차 싹이 돋는 상태, 날씨, 인력 수급 등에 촉각을 세운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명차를 얻으려 하여도 이는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과 자연이 내주는 찻잎의 순수한 내면세계를 증기나 화력을 이용하여 갈무리할 뿐이다. 이런 원리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궁극적으로 좋은 차는 하늘이 내는 것이다. 아무리 차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완벽했다고 하더라도 차를 따는 시기에 비가 오거나 예기치 못하게 춥다든지 무더워지는 자연의 조건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제다인은 겸허하고도 순선한 마음으로 좋은 차를 내줄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저 성의를 다해 자연이 길러낸 찻잎이 지닌 풍미를 자연스럽게 갈무리하는 것이 제다인의 마음 자세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로부터 좋은 차는 가인(佳人)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 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로향상을 도모하는 사람은 차를 가까이 하였다. 이런 차의 진수를 최상으로 즐기기 위한 방법은 탕법으로 정의되지만, 삶의 여유에 놀이가 빠질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욕구는 차를 마시며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차 놀이의 향연이다.

이런 사례는 명나라 사람 하수방(1551~1635)의 〈다동(茶董)〉 '탕희(湯戲)'조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를 내면서 잔 표면에 사물의 형상을 환상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다장(차를 잘 내는 장인)의 신과 통하는 기예이다. 승려 복전은 차 다루기를 잘했는데, 탕을 (다완에) 부어 환상적인 사물의 모양을 완성했다. 시 한 구와 점다한 네 잔의 차는 함께 절구 시 한 수를 다탕(茶湯)의 표면에 드러낸 것이다. 복전의 제자가 날마다 그 문하에 나아가 (그가) 찻잔의 표면에 사물의 형상을 그리는 것을 배우고자 했다. 스스로 완성되자 시를 지어 말하길 찻잔 속에 물로 화려한 그림을 그리니 교묘한 그림, 배워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오히려 지금 육우를 비웃나니 차 다리기로 겨우 명성 얻기만을 좋아했구려.(饋茶而幻出物象於湯面者 茶匠通神之藝也 沙門福全長於茶海 能注湯幻 茶成 將詩一句並點四甌共一絕句 泛乎湯表 檀越日造其門 求觀湯戲 全自詠詩曰生成盞裏水丹青 巧畫工夫學不成 卻笑當年陸鴻漸 煎茶贏得好名聲)**



려시대 유행했던 연고백차의 차 거품, 일명 다화라고도 하였다.

## 차 즐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차 놀이' 부상
## 송대 사찰서 '투다' 유행… 탕법 우열 가려

윗글은 송대 사찰에서 유행했던 투다(鬪茶)의 규모와 풍모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승단의 풍류, 다시 말해 수행 여가를 차로 구현했던 차 문화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사원차의 풍류는 명전(茗戰), 혹은 투다라고 하였다. 이는 문인에게 영향을 주어 차 문화의 결을 풍성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이런 유형은 고려시대 사찰에서도 영향을 주어 다양한 차 유희를 즐겼을 것이라 짐작된다. 당시 사찰의 차 유희의 유형적 사례는 이연종이 지은 '박치암이 차를 보냈기에 감사를 표하며'라는 시에 "사미승 삼매의 날랜 솜씨로(沙彌自快三昧手) 찻잔 속에 새하얀 차 거품을 쉬지 않고 만드네(雪乳飜甌點不已)"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특히 사미승 삼매의 경쾌한 솜씨는 혹 복전 승려나 그의 제자가 만들어냈던 탕희와 상통하는 것은 아닐까.

원래 탕희는 단차나 연고 백차가 유행하던 시기에 나타난 음다의 유형으로, 사찰에서 유행하여 문인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사원의 수행승 중에는 차의 기예에 출중한 승려도 있었다는 점에서 다장(茶匠), 혹은 신과 통하는 기예라는 용어가 생성되었을 것이다. 이는 수행의 여가를 차를 즐기는 방법으로, 승려들이 주도했던 차의 문희(文戲)요 다희(茶戲), 즉 차 놀이였던 셈이다.

한편 차의 우열을 겨루는 탕사(湯社)라는 놀이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동〉'탕사'조에 소개된 내용에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대 때 노공 화응의 자는 성적이다.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번갈아가며 서로 차를 마셨는데, 차 맛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 이를 탕사라고 불렀다(五代時 魯公和凝 字成績 率同列遞日以茶相飮, 味劣者有罰 號 湯社)**

오대는 오대십국 시기로, 당나라가 멸망한 후 907년~979년경을 말한다. 이 무렵 중국의 차 문화는 전역으로 확산되어, 차를 만드는 방법에도 덩이차(餠茶)보다 더욱더 섬세한 공정 과정이 추가되었던 단차의 출현 시기이다. 당시 관료들은 서로 차를 끓여 그 우열을 가리는 놀이가 유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상벌을 정하는 등 차를 통한 놀이의 형태도 매우 세분화되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㉔

**1. 다음은 육도윤회(六道輪廻)를 묘사한 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윤회설에 의하면 인간은 꼭 죽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면에서 여섯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볼 수 있다.
때로 하늘의 신들처럼 여유롭고 유쾌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는 갈대인 ( ㉠ )으로서 선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 ㉡ )처럼 분노에 차 난폭한 행동을 일삼기도 하고, 때로는 ( ㉢ )처럼 우둔하기도 하고, 때로는 ( ㉣ )처럼 굶주림에 괴로워하며 위축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 중생처럼 쓰라린 고통 속에서 도저히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 | ㉠ | ㉡ | ㉢ | ㉣ |
|---|---|---|---|---|
| ① | 인 간 | 아수라 | 짐 승 | 아 귀 |
| ② | 인 간 | 천 상 | 아수라 | 짐 승 |
| ③ | 인 간 | 아 귀 | 보 살 | 아수라 |
| ④ | 아수라 | 짐 승 | 아 귀 | 인 간 |
| ⑤ | 인 간 | 아수라 | 아 귀 | 짐 승 |

해설 : 인간은 행복과 고통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입장이며, 아수라는 항상 분노하는 존재이다. 짐승은 인간에 비하여 우둔하며 아귀는 채울 수 없는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존재이다.

**2. 부처님께서 사르나트(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들에게 말한 최초의 설법을 초전법륜이라 한다. 다음 중 초전법륜의 내용은?**

① 공(空) ② 사성제 ③ 반야사상 ④ 유식사상 ⑤ 정토사상

해설 : 부처님께서는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사성제를 관찰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에 자신이 깨달은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을 생각하셔서 6년 고행을 같이 하다가 떠난 다섯 명의 수행자를 떠올리시고 그들에게 사성제를 설하시려 붓다가야에서 사르나트(녹야원)에 당도하셔서 첫 설법인 초전법륜을 굴리셨다.

**3. 삼학(三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공부이다.
② 계학은 악업을 막고 선업을 실천하는 행동규범이다.
③ 정학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삼매에 드는 공부이다.
④ 수학은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수하는 공부이다.
⑤ 혜학은 존재와 세계에 대한 바른 통찰이며, 무상과고, 무아의 통찰을 강조한다.

해설 : 삼학이란 계(계율), 정(선정), 혜(지혜)학의 세 가지 배움을 말한다. 수(修)학은 정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4. 열 가지 선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말
② 다툼을 부추기는 이간질
③ 내 것을 남에게 베푸는 행동
④ 생명을 해치지 않고 살리는 행동
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해설 : 열 가지 선업을 십선업(十善業)이라고 한다. 보통의 계율은 악한 행동의 제지와 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면, 십선업은 선한 행동의 적극적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툼을 부추기는 이간질은 선한 업이 아니고, 열 가지 악한 업인 십악업(十惡業)에 속한다. 불자는 십악업을 멀리 여의고 십선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5. 부처님은'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하므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교설을 지칭하는 불교교리 용어는?**

① 제법무아 ② 십이연기 ③ 열반적정 ④ 일체개고 ⑤ 제행무상

해설 :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핵심을 이루는 것은 연기사상이다. 연기란 모든 것(제법)이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가 나고 없어지는(생멸) 연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를 열 두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 십이연기이다. 이 연기법에 의하여 원인과 결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은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으며(제법무아),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하여 변화하고(제행무상), 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고통이며(일체개고), 이 인과가 멈추어 적정해진 것을 열반(열반적정)이라고 한다. ①~⑤의 항목들이 다 연기법과 관련있음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 위 각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숙지하여 풀어야 한다.

정답 : 1. ① 2. ② 3. ④ 4. ⑤ 5.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